

“만과 섬 가치를 잇자” 灣 품은 17개국 도시 여수로

(만)

19~23일 ‘아름다운 만 세계총회’...만과 해양 미래상 등 논의 시, 국제 학술행사·축제 연계 이벤트...전남 관광 명소 탐방도

만(灣Bay)을 지닌 세계 17개국 도시들이 오는 19~23일 닷새간 여수를 찾는다.

여수시는 ‘17차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 세계총회’ 개최를 앞두고 최근 준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아름다운 만 세계총회는 오는 19~23일 여수세계박람회장 등에서 열린다. 행사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 협회 회원들이 참가한다.

이 국제협회는 만을 보유한 도시들이 만의 보호와 보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설립했다.

지난 1997년 프랑스 빌랑에 따라 설립됐으며, 본부는 프랑스 만(Vannes)시에 있다.

전 세계 25개국 47개 만이 회원으로 가입돼있

다.

여수시는 지난해 17차 차기 세계총회 개최지로 선정됐다.

지난 2009년 여수시는 협회에 가입했으며, 2014년에 10차 세계총회를 치른 뒤 9년 만에 다시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총회 주제는 ‘만과 섬의 가치를 잇다’이다.

회원 도시들은 만과 해양의 미래상을 논하고 교류와 협력 의지를 다진다.

‘여수만 르네상스’(부흥)를 추진하고 있는 여수시는 여수만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 해양 미래상을 제시하기로 했다.

세계총회 기간 해양 국제 학술행사와 ‘동동북축

제’ 등 지역축제 연계 행사를 열고, 여수만을 포함한 전남 주요 관광 명소를 탐방할 예정이다.

2026여수세계박람회를 홍보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남해안 남중권 유치 필요성을 알릴 계획도 세웠다.

여수시는 김종기 부시장 주재로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준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는 해양정책과 등 행사 관련 9개 부서장, 대행사 등 1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추진상황과 교통 대책, 문제점,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종기 여수시 부시장은 “이번 행사는 2014년 10차 총회 이후 9년 만에 여수에서 개최된다”며 “세계 17개국이 참여하는 국제적 행사이니 행사 전까지 준비사항을 자세히 챙겨 성공적인 행사개최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청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여수시가 ‘17차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 세계총회(19~23일)’를 앞두고 준비상황 보고회를 열고 행사 준비를 점검했다. (여수시 제공)

장흥 6번째 유기농 생태마을에 관산읍 지북마을

체험 개발비 등 최대 5억원 지원

장흥군이 올해 하반기 전남도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 공모에 관산읍 지북마을이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유기농 생태마을은 10호 이상의 농가가 참여하는 친환경농업 실천마을로 전남도에서 지정한다.

친환경 인증면적이 10ha, 유기농 인증면적 비율이 30% 이상으로 생태환경이 잘 보전되고 친환경 실천의지가 강한 마을이 선정 대상이다.

현재 장흥군에선 관산읍 송촌마을과 옥촌마을, 안양면 신촌마을, 학송마을, 모량마을 등 총 5개소가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관산읍 지북마을은 농가 대부분이 친환경농업을 실천해 유기농 35.4ha, 무농약 13.2ha 등 총 48.6ha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전문가 평가단으로부터 지정저수지, 소산봉, 녹차밭 등의 생태환경 가치도 인정 받았다.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되면 최대 5억원의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 등의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이 외에도 체험프로그램 개발비용 및 사무장 운영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장흥군 관산읍 지북마을 전경. (장흥군 제공)

이용재 지북마을 이장은 “지난 2005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선정 당시 청태전마을로 지정돼 차관련 주민들의 역량이 함양돼 있다. 앞으로 유기농 생태마을과 연계한 마을사업을 통해 주민소득 향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완도 금일은 지금 변신중

90억 투입 충동권역 농산어촌개발...어항시설 개선 등

완도군 금일읍 충동권역을 대상으로 한 정주 여건 개선사업이 내년 준공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

완도군은 금일읍 동송리, 공항리, 용항리 일원 충동권역에 국비 63억원, 지방비 27억원 등 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금일 충동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금일 충동권역 개발은 지난 2020년 완도군이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완도군은 설명회 등을 열어 주민 의견을 들은 뒤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기본계획을 세웠다.

사업 대상 면적은 총 296ha로, 동송리 130ha·공항리 92ha·용항리 74ha 등이 포함됐다.

이 사업은 충동권역에 생활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교류망 활성화, 특화 경관 개선 등을 벌인다.

동송마을에는 머무르며 귀어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정장년 교류센터를 조성하

다.

용항마을은 육아 돌봄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마을회관을 새로 단장한다. 공항마을에는 경로당(노인복지거점) 등을 조성한다. 마을이음길을 복원하고 체육공원을 정비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방파제를 연장하고 안전거점 등 어항시설을 개선하고 차량 통행로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한다.

완도군은 충동권역 생활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귀어인 등 인구를 유입하는 효과를 부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 2018년부터 7년 연속 보길권역, 약산권역, 충동권역, 고금권역, 금당권역, 금빛안권역, 봉선권역 등을 대상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 선정돼왔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현대삼호중, 한·일 학생 초청 선박 명명식

HD현대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대표이사 신현대 사장)이 10일 LPG 운반선(8만6000㎡급) 명명식을 열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일본 미쓰이사로부터 선박 건조를 수주했다. 선박 이름은 ‘글로벌 프론티어’로 정했다.

선박은 길이 223m, 너비 32m, 깊이 23m 규모로 지어졌다. LPG 이중 연료 추진방식을 통한 오염물질 저감 능력을 갖췄다.

이날 명명식에는 신현대 사장과 선박 실선주인 니센 카이운사의 아베 카즈야 사장, 용선주인 에네오스 글로벌사의 타카쿠라 아키라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와 일본 시코쿠

하카타고등학교 학생들도 참석해 선박 건조를 축하했다. 행사는 배고동 시연과 선상 견학 등으로 진행됐다.

하카타고교의 아베 유카리 양은 “선박 탄생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명명식에서 샤페인을 깨뜨리는 주인공으로 나서 매우 영광이고 색다른 경험이였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공영방송 NHK는 명명식에 참석해 현대삼호중공업의 자동화공장, 인공지능(AI) 협동로봇 등 첨단 선박건조시설을 둘러봤다.

NHK는 한국 조선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한일 양국의 협력을 취재할 계획이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함평군, 결혼 이주민 원어민 강사 파견

초·중 6곳에서 외국어 수업...주민 일자리 창출 효과

함평군이 결혼 이민자를 지역 학교 원어민 강사로 파견하면서 주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고 있다.

10일 함평군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함평군 가족센

터는 지난날까지 6개 지역 초·중학교에 중국·일본 출신 결혼 이민자를 원어민 강사로 파견했다.

결혼 이민자의 수업을 들은 초·중학생은 모두 1692명으로 집계됐다.

함평군은 연말까지 7개 학교 609명의 학생에게 원어민 강사 수업을 제공할 방침이다.

함평군 가족센터는 지난 2021년부터 결혼 이민자 파견 수업을 펼치고 있다.

결혼 이민자의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역 학생에 대한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자세한 내용은 함평군 가족센터(061-324-543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